

## 민주, 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판 흔든다

정청래 당 대표 “합치자”…지선 원팀으로 승부수  
정계 개편 신호탄…“일방적 결정” 당내 반발 상당  
조국 “국민·당원의 의견 경청해 결정” 즉답 회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센세이션 복잡해지고 있다. 범여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당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광주·전남에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웠고, 이제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함께 치렀다”며 “다가오는 6·3 지방 선거 역시 범여권이 힘을 모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결집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즉각적인 반발 입장장을 밝히기보다는 당내 논의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제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혁신당은 공당인 만큼 의원총회와 당무기구 논의의 등 절차를 거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 제안은 중앙 정치권보다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는 평가

다. 민주당 입장에선 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수도권과 일부 접경 지역에서 범여권 표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합당이 성사되면 후보 단일화 효과를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양상이 다르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지만, 혁신당 역시 ‘대안 정당’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기워왔다.

실제 전남 담양에서는 혁신당 소속 군수가 당선되며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됐고, 영광 등 일부 지역에서도 혁신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을 다져왔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경쟁은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으로 옮겨가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합당이 성사될 경우 공천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제명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데다,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자들이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혁신당 출마 예정자들까지 경선 대열에 합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천 과정에서 지역별 조정이나 배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한



미래 K-문화 선도 신예작가들 ‘첫 발’ 22일 오후 광주 북구 증평동 광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2026광남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한 이승배 광남일보 시장, 임원식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 회장, 김현주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박신영 국제펜 광주지역위원회 명예이사장 등 내외빈들과 수상자 및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양준 원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배다인 동화 심사위원, 윤소정 동화 당선자, 최류빈 평론 당선자, 민병훈 시 당선자, 차현숙 소설 당선자, 김현주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정강철 소설 심사위원(소설가·광주 광덕고 교사),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 김영삼 평론 심사위원(전남대 연구교수), 광주 시 심사위원(시인·전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듯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해도 늦지 않다”거나 “합당은 당원 의사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내 종론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통합까지는 상당한 논의의 과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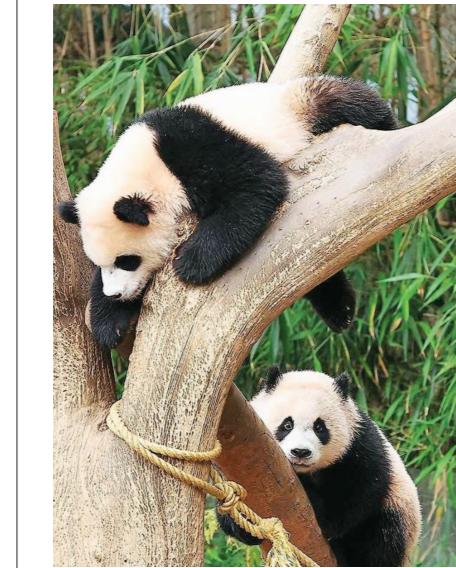
광주·전남 정치권은 합당 논의의 행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선거 구도는 ‘당 대 당 경쟁’에서 ‘당내 경선 경쟁’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후보 선출 과정과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합당이 무산될 경우에도 혁신당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면서 기존 민주당 중심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 통합 이슈에다 합당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입지자들의 센세이션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합당 절차가 나와야 어느 정도 지방선거의 가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제2 푸바오와 남자친구’ 광주살이 실현되나

김성환 장관, 우치동물원 방문…판다 수용 여건 등 살펴

오는 2028년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를 만나 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 회담에서 판다 대여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 측도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성환 기획기획부 장관이 22일 직접 우치동물원의 판다 입식 예정 부지와 준비 상황을 살폈다.

김성환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동물원 주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사육시설 후보지와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판다 시육시설 후보지로 우치공원 전체 부지 12만1302㎡ 중 열대조류관 앞 광장 약 4300㎡다. 이 부지에 판다 전용 사육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측도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고 있다. 판다 입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판다를

한국에 테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습적이면 푸바오와 그

남자친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예

정이다.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이 신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치동물원은 국내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으로, 동물 복지와 진료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사자와 호

랑이, 기린, 코끼리, 린달기슴곰 등 포유

류와 조류·파충류 89종 667마리를 사육

중이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KOSPI  
5,019.54  
WOORI WON FX

코스피 ‘개미의 힘’  
꿈의 5000 뚫었다

5019 찍고 4952에 마감  
반도체·이차전지 ‘견인’

코스피가 ‘꿈의 지수’였던 ‘5000피’를  
장중 사상 처음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7.13p  
(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장중

5019.54까지 올라갔다. ▶관련기사 4면

지수는 등락을 지속하다가 차의 실현

매물에 전장보다 42.60p (0.87%) 오른

4952.53에 장을 마쳤다.

장 마감까지 5000선은 지켜내지 못했

지만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넘어서

3개월만에 이룬 쾌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557억원 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18억

원, 102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억

제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장  
중 15만7000원을 터치하며 역대 최고가  
를 경신하고 1.87% 오른 15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통주  
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 1000조원  
을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넘어서게  
됐다. SK하이닉스도 75만5000원으로  
2.03% 올랐다.

아울러 ‘불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기금  
증권(5.83%), 삼성증권(2.70%) 등 증권  
주도 줄줄이 상승했다. 로보운 배터리 수  
요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5.70%), 삼  
성SDI(18.67%), LG화학(5.89%) 등 이  
차전지주도 일제히 뛰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희찬 리서치센터장  
은 “코스피의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망치도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다”며 “주도력을 가진 반  
도체가 핵심이 되고 전력기기나 원전, 조  
선, 증권업 모두 코스피 상승의 견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지수는 12.48p (1.31%) 오른  
963.77로 출발해 19.06p (2.00%) 오른  
970.35로 장을 마쳤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당신의 삶이 더 특별해집니다!!

#경제도약 #촘촘한복지 #생활권통합 #함께가는북구

